

# 청년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의 조절효과 -

최정신<sup>a</sup> · 최윤지<sup>b\*\*</sup> · 손주리<sup>a</sup> · 박용규<sup>c</sup>

<sup>a</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c</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석사후전문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 The Effect of Job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of Young Farmers

- Moderating Effects of Work Hours -

Jung Shin Choi<sup>a</sup> · Yoon Ji Choi<sup>b</sup> · Joo Lee Son<sup>a</sup> · Yong Kyu Park<sup>c</sup>

<sup>a</sup>Ju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Korea

<sup>b</sup>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Korea

<sup>c</sup>Post-Master's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work hours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young farm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618 young farmers for one month from July 1, 2022.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quality of life and work hours had a negative correlation, and job stress and work hou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work hours were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Third, as a result of identifying the area of significance of work hours, it was found that work hours played a role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when work hours were longer than 1.327 hours. Fourth, as a result of visualizing the moderating effect by dividing work hours into three groups: high, medium, and low, it was found that even if the level of job stress was the same, the farmers with long work hours perceived their quality of life to be worse than those with shorter work hours. It can be said that in order for young farmers to settle down and live stably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s professionals, it is very important to actively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at can secure time to enjoy culture and leisure and relieve job stress.

**Key words:** young farmers, job stress, quality of life, work hours, moderation effect

### 1. 서론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

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 각국은 경제 중심 분석의 한계를 인지하고 삶의 질 및 형평성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활용되던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각종 경제지수들이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주요어: 청년농업인,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 근로시간, 조절효과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6732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최윤지) 전화: 063-238-2645, e-mail: veritas96@korea.kr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BLI: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였다(황혜신, & 이환성, 2020). 삶의 질 지표는 2011년부터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매년 발표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GDP 순위 8위(World Bank Data 홈페이지, 2023. 5. 15.)의 경제성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41개국 중 32위에 머물고 있다(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2023. 5. 15.). 특히,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19.7%로 OECD 국가 평균 10.2% 대비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 근로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2021년 164.2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74.3시간인 반면,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150.0시간, 169.1시간으로 청년층의 근로시간이 타 연령대에 비해 길다고 할 수 있다(심수진, 남상민, & 김은아, 2023).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아직까지도 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2007)’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8)’ 등이 제정되면서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고,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근로자는 일에 치우친 생활로 인해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만성적인 시간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년 세대와 관련된 많은 지표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상황들을 대변하는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6.0%, 6.4%이며(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홈페이지, 2022.5.15.), 청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씩 감정 스트레스(24.9%), 과중한 업무(19.1%), 성과 스트레스(11.1%)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세정 등, 2022).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율은 1990년 14.6%에서 2020년 1.2%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통계청, 1991; 2021), 40세 미만 농촌 청년의 생활만족도는 51.3%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인 5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우 등, 2023). 이는 젊은층의 유입 정체로 농업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농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엄지범, & 박명은, 2022).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와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나, 정책과 현실의 좁혀지지 않은 격차로 인해 농업 노동력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 2022).

이러한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농업인 관련 연구는 이들의 농업·농촌 정착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정착을 위해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2019)은 농업경영 특성과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 수준과 경영 성과와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을 분석한 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2022)은 연령, 교육수준, 승계농 여부, 농업소득이 영농정착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황인옥,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 김종숙(2017)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성공 특성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농업을 강조하였으며, 엄지범, & 박명은(2022)은 예비 청년창업농의 창업의지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창농을 하기까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인 역량 향상 교육 지원을 강조하였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농촌지역 청년층의 이주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최정신, 황정임, 최윤지, & 한송희(2018)는 거주기간, 문화여가 만족도, 마을 안전 인식, 공동체의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황정임, 최윤지, 최정신, & 정용경(2019) 연구에서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도심지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 먼 지역보다 읍 지역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청년농업인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의 경영 특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거나, 정착 특성 및 영농 지속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겪고 있는 근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업 분야는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이기현 등, 2011), 임금근로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행 일·생활 균형 제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무직 직원과 자영업자, 농업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Saarni, Saarni, & Saarni, 2008)에서도 농업인의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사회적 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래 농업의 생산 인력 확보 측면에서 청년층의 지속적인 노동력 유입과 이러한 인력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근로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엄진영 등,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삶의 질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삶의 질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 등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심수진, 남상민, & 김은아, 2023).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넘어서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관점에서 Campbell(1976)이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Young, & Longman(1983)은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라고 정의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포함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요소로 보았으며, Burckhar(1985)는 민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인간의 감정, 유쾌함과 불쾌감 간의 조화 등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남희수, 진봉희, & 이정임, 2022).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으로 정의하였다(The WHOQOL Group, 1995). 즉,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상대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적 영역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이라 정의할 수 있다(남희수, 진봉희, & 이정임, 2022).

반면, Lane(1994)은 삶의 질을 삶에 필요한 객관적 조건과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Sirgy(2001)는 삶의 질을 외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반응을 강조한 상향확산이론과 개인의 내재적 성향을 강조한 하향확산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상향확산이론은

개인의 주관적·인지적 경험에 따라 삶의 질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하향확산이론은 개인의 특성이나 기질에 의해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았다(최진옥, & 노종호, 2017).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청년농업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역에서 인지하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정의하였다.

### 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스트레스 개념에서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한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위원회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과 근로자의 능력, 희망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NIOSH, 1999). 즉, 직무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의 부조화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적 증상은 긍정적인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나 대부분이 역기능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김광석, 박종, 박부연, 김성길, & 황은영, 2014). 이는 근로자가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주호진, 2007; 박현환, 주호진, & 정술, 202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복잡한 직무의 내용, 역할 모호성,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 조직 내 대인관계 등의 갈등이라고도 보았다(심정선, 2010).

한편, 장세진 등(2005)은 직무환경과 노동자의 욕구가 일치되지 않고 노동자의 능력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으며, 업무조직,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직무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최수찬, 이은혜, 원경림, 조영림, & 김다솜(2019)은 직장에서의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최해진, & 권혁기(2008)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노동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설 때 느끼는 갈등으로, 김해지, & 지정훈(2019)은 조직에서의 업무, 대인관계, 보상, 가정관련 요인의 불균형으로 인한 마찰로 정의하였다.

유재두(2020)는 해양경찰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직에서 구성원이라는 신분과 조직 환경의 상호작용적 과정에서 받게 되는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최정신, 최윤지, 채해성, & 김가희(2022)는 농업인 직무스트레스를 농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직무스트레스를 농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 2.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3. 5. 15.). 근로시간은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심수진, 남상민, & 김은아, 2023).

장시간 근로는 가족생활과 개인적 삶에 필요한 시간을 제한하여 시간적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서구 사회에서 1970년대 이래 전개되어온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둘러싼 규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며, 그 결과 근로자들은 만성적인 시간 부족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신경아, 2009). 즉,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가족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4.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의 관계

삶의 질이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한 주제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연구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김혜지, & 지정훈, 2019). 근로자의 삶의 질은 임금과 근로시간, 작업환경, 복지혜택, 경력개발과 인간관계 등의 직무관련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tephen, Robert, Edington, & Kloss, 1988; Jennifer, 2014). 직무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수준 및 건강관

련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의 저하로 생산성 하락 및 산업재해 증가, 의료 이용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장세진 등, 2005; 박혜주, 김윤영, 박기현, 이시우, & 유종향, 2014; 김지원, & 김연옥, 2019; 이영주, & 노경민, 2020).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며(김지원, & 김연옥, 2019, 이영주, & 노경민, 2020),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박혜주, 김윤영, 박기현, 이시우, & 유종향, 2014; 이영미, & 피영규, 2016; Babapour, Gahassab, & Fathnezhad, 2022).

유재두(2020)는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의 유형 중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유형 중 조직 요인은 삶의 질의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 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권용선(2018)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및 삶의 질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우울수준과 삶의 질을 고려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김지원, & 김연옥(2019)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김경희, & 민재한(2022)은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유미, & 심문숙(2022)도 직무스트레스는 환경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근로자의 우울이 심해져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중재는 개인과 근무 환경 및 조직 수준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희수(2013)는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키고 더 나아가 직업적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 근로시간과 삶의 질, 근로시간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Barnett(2006)과 주은선(2016), Woo, Lee, & Park(2020), Hong, Zhang, & Xue, et al.(2022)은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하였고, Dembe, Erickson, Delbos, & Banks(2005)의 연구에서도 초과

근무 작업을 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지혜 & 조미숙(2009)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고, 신용우, & 조영일(2019)도 근로시간의 감소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직접 상승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근로시간의 감소를 통하여 직 무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근로시간의 감소가 근로환경, 근로시간, 복지후 생제도 등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근로자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보다 52시간 초과인 경우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우, & 홍남수, 2022), 근로시간이 길수록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정선이, 차승은, & 이주미, 2023). 특히 근로시간이 길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고(김광숙, 2003)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이성균, 2016),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이윤경, 정혜선, & 장원기, 2006).

셋째,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등 일반적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수인, 2000; 신나영, 2007),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박은희, & 김혜숙, 2017; 김선미, & 김은하, 2015; Viana, Sampaio, Mancini, Parreira, & Drummond, 2007). 배우자 유무는 미혼이거나 이혼, 별거 중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삶의 질이 낮고(윤조덕, & 박수경, 1998),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김선미, & 김은하, 2015; Viana, Sampaio, Mancini, Parreira, & Drummond, 2007)가 있는 반면, 미혼인 경우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강화, 2008). 또한, 남희수(2013)는 학력, 연령, 결혼 여부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 결혼 유무, 총 수입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 삶의 질은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 생산성, 임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 또한, 근로시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러 있으나(김현주, 2012), 근로시간이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은 주은선(2016)의 연구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신용우, & 조영일, 2019).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건강 관련 연구(김경래, 2011; 박우영, & 이남희, 2013; 김명희, 2015; 이현경, 김경수, 최동필, 최원중, & 박수인, 2019)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같은 심리적 측면을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로 검증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4H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원 중 현재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C와 모바일을 통해 URL에 접속하여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독려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최종 618 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2. 측정도구

##### 3.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장세진 등(2004)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와 농업인 업무스트레스 평가 지표(장세진 등, 2011; 이기현 등, 2011)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최정신, 최윤지, 채혜성, & 김가희 (202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종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최정신, 최윤지, 채혜성, & 김가희 (2022)의 Cronbach's  $\alpha$  값은 .8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775로 나타났다.

##### 3.2.2. 삶의 질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민성길 등(2000)이 표준화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작한 간편형 삶의 질 척도(WHOQOL-

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 The WHOQOL Group, 1998)를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번역한 도구로써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형식이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성길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8이었고, 만 19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최유승, 조예진, 황예은, & 현명호(2022)의 Cronbach’s  $\alpha$  값은 .93으로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인 .939와 거의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는 자기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작성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평균 시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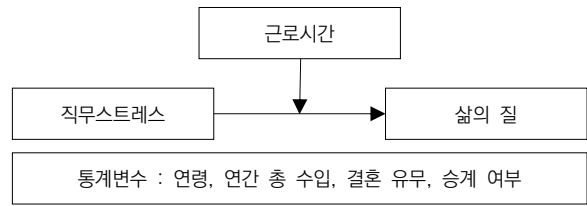
### 3.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2 버전(Hayes, 2022)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는 경로분석접근법을 기반으로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근로시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21)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단순조절모형 방법인 Model 1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Johnson Neyman 검정을 통해 유의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 사례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정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5~30세 미만 29.0%, 30~35세 미만 27.3%, 35~40세 미만 26.9%, 25세 미만 16.8%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3세(SD=5.210)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41.1%, 미혼이 58.9%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 비율은 남성 89.8%, 여성 10.2%로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79.4%가 전문대학 이상이었고, 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포함하여 농학계 전문대 이상이 42.3%, 비농학계 전문대학 이상이 37.1%로 농학 관련 전공이 비농학 전공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농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 경영 조직 형태는 개별농가가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법인인 5.0%이었다. 개별농가 중 90.6%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67.5%가 승계농으로 비승계농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의 지위를 살펴보면, 경영주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경영주 12.0%, 가족종사자 11.5% 순이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이하가 33.6%, 6~10년 이하 29.3%, 4~5년 25.4%, 11년 이상 11.7% 순이었으며, 평균 농업 종사 기간은 6.0년(SD=4.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소득은 3천만원 이하가 31.2%로 가장 많고, 5천만원~1억원 이하 27.2%, 3~5천만원 23.0%, 1억원 초과 18.6% 순이었으며, 평균 연간 총 소득은 8684.2만원(SD=8684.19)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농가 소득 4615.3만원(통계청, 2023)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으로, 일반 농업인보다 고소득 청년농업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에 대한 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18)

구분				구분			
		N	%			N	%
연령	25세 미만	104	16.8	농업 조직 형태	개인(개별농가)	580	93.9
	25세~30세 미만	179	29.0		농업법인	31	5.0
	30세~35세 미만	169	27.3		회사법인	5	0.8
	35세~40세 미만	166	26.9		조합법인	2	0.3
혼인상태	기혼	254	41.1	경영체 등록 유무	개별농가 중 등록	560	90.6
	미혼	364	58.9		개별농가 중 미등록	20	3.2
					비해당(농업법인, 회사법인 등)	38	6.1
성별	남성	555	89.8	승계 유무	승계농	417	67.5
	여성	63	10.2		비승계농	201	32.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8	20.6	농업인 지위	경영주	472	76.4
	한국농수산대	74	12.0		공동경영주	74	12.0
	농학계 전문대학 이상	187	30.3		유급가족종사자	52	8.4
	비농학계 전문대학 이상	229	37.1		무급가족종사자	19	3.1
			상용직근로자		1	0.2	
연간 총 소득	3천만원 이하	193	31.2	농업 종사 기간	3년 이하	208	33.6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42	23.0		4~5년 이하	157	25.4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68	27.2		6~10년 이하	181	29.3
	1억원 초과	115	18.6		11년 이상	72	11.7

〈표 2〉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 기술통계분석 (N=618)

구분	M	SD
삶의 질	3.73	.653
직무스트레스	2.81	.695
근로시간	9.47	2.858

〈표 3〉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 상관관계 (N=618)

구분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
삶의 질	1		
직무스트레스	-.491***	1	
근로시간	-.184***	.197***	1

\*\*\*p<.001

술통계량을 분석하였으며,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73 점(SD=.653), 2.81 점(SD=.695)이었다. 삶의 질은 중간값인 3 보다 높은 수준이며,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47시간(SD=2.858)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1일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1시간 47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r=-.491, p<.01$ ), 삶의 질과 근로시간( $r=.184, p<.01$ )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한편,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 $r=-.197, p<.01$ )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

청년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독립변수)와 삶의 질(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2021)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모델 1번을 사용하였다. 연령, 연간 총 수입, 결혼 유무, 승계 여부는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2.319, p<.001$ ). 일반적 특성인 연령, 연간 총 수입, 결혼 유무, 승계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년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표 4〉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N=618)

구분		$\beta$	SE	t	LLCI	ULCI
	상수	4.865	0.351	13.844***	4.175	5.555
독립변인	직무스트레스	-0.161	0.115	-1.397	-0.387	0.065
조절변인	근로시간	0.063	0.034	1.825	-0.005	0.130
독립×조절	직무스트레스×근로시간	-0.028	0.011	-2.430*	-0.050	-0.005
통제변인	연령	-0.018	0.005	-3.483**	-0.029	-0.008
	연간 총 수입	0.000	0.000	-0.649	0.000	0.000
	결혼 유무(기혼=1)	0.114	0.055	2.086*	0.007	0.222
	승계 여부(승계=1)	-0.005	0.049	-0.110	-0.101	0.091

F=32.319\*\*\*, R<sup>2</sup>=.271,  $\Delta R^2$ =.007\*

\*p<.05, \*\*p<.01, \*\*\*p<.001

〈표 5〉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 영향 관계의 조절효과 (N=618)

구분	Effect	SE	t	LLCI	ULCI
M-1SD	6.611	0.048	-7.156***	-0.439	-0.250
Mean	9.469	0.034	-12.513***	-0.491	-0.358
M+1SD	12.327	0.046	-10.939***	-0.594	-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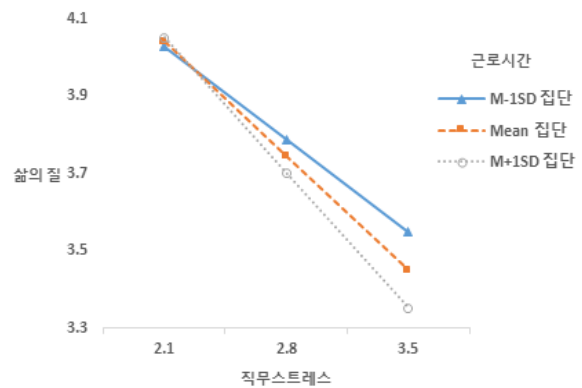
\*\*\*p<.001

-0.028, p<.05),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나타난 R<sup>2</sup> 변화량 ( $\Delta R^2$ )은 .007(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이 조절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연령, 연간 총 수입, 결혼 유무, 승계 여부 중에서 연령과 결혼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0.018, p<.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 유무는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0.114, p<.05), 기혼이 미혼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Aiken, &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조절변인인 근로시간을 평균 하 집단(M-1SD), 평균 집단(M), 평균 상 집단(M+1SD)의 3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신뢰구간 하한한계(LLCI)와 신뢰구간 상한한계(ULCI)를 나타내는 신뢰구간인 95% 이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yes, 2021). 근로시간 평균 하 집단의 신뢰구간은 -.439~-0.250이었으며, 평균 집단의 신뢰구간은 -.491~-0.358, 평균 상 집단의 신뢰구간은 -.594~-0.413으로 3개 집단 모두 신뢰구간인 95% 이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림 2〉 근로시간 조절효과

근로시간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세 집단 모두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짧은 집단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완만하였으나, 근로시간이 긴 집단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더 급해졌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나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값에서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는 단순 기울기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조절변수 값에 따라 조절변수의 유의성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Jonson-Neyman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석



〈표 6〉 근로시간의 유의성 영역

(N=618)

근로시간	Effect	SE	t	p	LLCI	ULCI
1.000	-0.188	0.104	-1.810	.071	-0.393	0.016
1.327	-0.198	0.101	-1.964	.050	-0.395	0.000
1.900	-0.214	0.094	-2.261	.024	-0.399	-0.028
2.800	-0.239	0.085	-2.810	.005	-0.405	-0.072
3.700	-0.264	0.076	-3.488	.001	-0.412	-0.115
4.600	-0.289	0.067	-4.339	.000	-0.419	-0.158
5.500	-0.314	0.058	-5.418	.000	-0.427	-0.200
6.400	-0.339	0.050	-6.788	.000	-0.437	-0.241

... 중략 ...

결과, 근로시간 값이 1.327 이상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전환된 지점이며,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이 1.327보다 높은 영역에서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조절효과 영향이 유의미한 비율은 청년농업인의 99.5%이었고, 근로시간이 1.327보다 낮은 0.5%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한국 4H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원 중 현재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결혼 유무가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는 김수인(2000), 신나영(2007)의 결과와 일치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삶의 질이 낮고(윤조덕, & 박수경, 1998),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다(Viana, Sampaio, Mancini, Parreira, & Drummond, 2007; 김선미, & 김은하, 2015)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과 근로시간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시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권용선(2018), 유재두(2020), 조옥

희, & 임종미(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은 조절효과를 갖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긴 사람이 짧은 사람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 연구(김경희, & 민재한, 2022; 김지원, & 김연옥, 2019; 임유미, & 심문숙, 2022; Hong, Zhang, & Xue, et al., 2022; Barnett, 2006; Woo, Lee, & Park, 2020)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Dembe, Erickson, Delbos, & Banks, 2005) 휴식시간을 포함한 일정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은 경제·사회·보건·복지 문제 뿐만 아니라, 휴일, 휴가 등의 근로기준 관련 제도와 고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로 인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초과근무 및 연속적으로 10시간 초과근무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농업 근로자의 건강과 상황 등에 따라 합의로 미리 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새롭게 고용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직률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경우 57~72만 엔의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엄진영 등, 2022). 한편,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있어서 농업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사전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근로 환경에 맞는 휴식시간과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소모된 노동력을 회복하고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로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작업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일·생활 균형 관련 법과 제도를 추진하면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강민정, 이서현, & 임희정, 2017). 그러나, 현행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는 임금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림어업종사자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이나 낮은 삶의 질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순미, & 이수진, 2019).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업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기간 중 생활 안정, 재취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구직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임대농업인의 경우 폐업과 지속적 소득 감소와 같은 초기 실패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취업의 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여성농업인은 출산,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며,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미비는 농업 분야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취약한 노동환경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으며, 육체적 노동 강도가 강하고, 농업 특성에 따른 8시간 초과 및 주말근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산·보급하고, 농업경영주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농업분야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사업자 등록과 근로자의 보수액 신고, 소득 신고 등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주와 근로자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농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업 경영주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한 고용관계 확립, 노무관리 관련 법률,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 농업 경영주의 근로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인적구성원인 청년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근로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농업 분야 직업 환경 개선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 분야 근무 환경 개선의 정책적 제언을 위해 조사대상을 청년농업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전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직업 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강민정, 이서현, & 임희정. (2017).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2023.5.15). *고용률*. eboard.moel.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5.15).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4. 권용선. (2018).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및 삶의 질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783-797. doi:10.2225/jlcci.2018.18.24.783
5. 김경래. (2011). 한국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련체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0(3), 523-531.
6. 김경희, & 민재한. (2022).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 *농촌지도와 개발*, 29(3), 143-153. doi:10.12653/jecd.2022.29.3.0143
7. 김광석, 박종, 박부연, 김성길, & 황은영. (2014).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및 피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

- 텐츠학회논문지, 14(3), 223-231. doi:10.5392/JKCA.2014.14.03.223
8. 김광숙. (2003). 생산직 기혼여성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관련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2), 212-223.
  9. 김명희. (2015). 농업인의 근골격계 증상의 통증 정도와 삶의 질의 관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3), 75-82. doi:10.35873/ajmahs.2015.5.3.008
  10. 김선미, & 김은하. (2015).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389-411. doi:10.16881/jss.2015.10.26.4.389
  11. 김수인. (2000).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자살사고 및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지원, & 김연옥. (2019).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울산 지역 자동차 하청업체 제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8(2), 94-103. doi:10.5807/kjohn.2019.28.2.94
  13. 김현우, & 홍남수. (2022).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1), 208-219. doi:10.5762/KAIS.2022.23.1.208
  14. 김현주. (2012). 장시간 노동의 건강영향과 건강관리. *대한토목학회지*, 60(7), 120-122.
  15. 김혜지, & 이정훈. (2019). 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시민행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학회지*, 15(3), 305-313. doi:10.15810/jic.2019.15.3.009
  16. 남희수. (20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0(1), 41-69. doi:10.0000/jecd.2013.20.1.0041
  17. 남희수, 진봉희, & 이정임. (2022). 농촌거주 노인의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9(2), 81-98. doi:10.12653/jecd.2022.29.2.0081
  18.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정신신경의학*, 39(3), 571-579.
  19. 박우영, & 이남희. (2013).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이 농업인의 기능체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 589-597. doi:10.51979/KSSLS.2013.02.51.589
  20. 박은희, & 김혜숙. (2017). 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581-589. doi:10.14400/JDC.2017.15.11.581
  21. 박지혜, & 조미숙. (2009).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과 직업만족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4(1), 63-71.
  22. 박현환, 주효진, & 정슬. (2021). 사회과학 학문분야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경향분석: 한국연구재단 우수 및 등재지 게재논문(2017년-2021년)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25(2), 275-303. doi:10.20484/klog.25.2.12
  23. 박혜주, 김윤영, 박기현, 이시우, & 유종향. (2014). 연구직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피로, 삶의 질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3(3), 171-179. doi:10.5807/kjohn.2014.23.3.171
  24. 신경아. (2009).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176-212.
  25. 신나영. (2007). 산업재해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신용우, & 조영일. (2019). 근로시간이 줄면 삶의 질은 좋아질까: 직무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45(3), 295-319. doi:10.15820/khjs.2019.45.3.012
  27. 심수진, 남상민, & 김은아. (2023). *국민 삶의 질 2022*. 대전: 통계청.
  28. 심정선. (2010). 민간 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및 대처방식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4), 733-754. doi:10.24230/ksiop.23.4.201011.733
  29. 엄지범, & 박명은. (2022). 스마트팜 예비 청년창업농의 창업의지 영향요인 분석: 기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29(4), 251-264. doi:10.12653/jecd.2022.29.4.0251
  30. 엄진영, 박기환, 윤종열, 허정희, 전무경, 권수현, et al. (2022).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2/3 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유재두. (2020).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22(2), 127-149.
  32. 윤조덕, & 박수경. (1998). 산재장애인의 삶의 질과 재활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5(2), 103-123.
  33. 이기현, 고상백, 강동묵, 정진주, 김형렬, 김인아, et al. (2011). 우리나라 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대한 직업환경의학학회지*, 23(2), 213-224.
  34. 이민우, 윤순덕, 안필균, 김태화, 홍은정, 신동호, et al. (2023).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안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35. 이성균. (2016). 한국 임금근로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 분석. *한국사회학*, 50(4), 203-232.
  36. 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 (202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9(2), 99-110. doi:10.12

- 653/jecd.2022.29.2.0099
37. 이순미, & 이수진. (2019). *전남 일·생활 균형 현황과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
  38. 이영미, & 피영규. (2016).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증상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6(2), 210-218. doi:10.15269/JKSOEH.2016.26.2.210
  39. 이영주, & 노경민. (2020). 사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9(3), 173-183. doi:10.5807/kjohn.2020.29.3.173
  40. 이윤경, 정혜선, & 장원기. (2006).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5(2), 115-125.
  41. 이현경, 김경수, 최동필, 최원중, & 박수인. (2019).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사고 경험률 및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2), 717-731. doi:10.37727/jkdas.2019.21.2.717
  42. 임유미, & 심문숙. (2022).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환경, 직무스트레스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6(3), 361-374. doi:10.5932/JKPHN.2022.36.3.361
  43. 장세진, 강동목, 강명근, 고상백, 김성아, 김수영, et al. (2004).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2차년도)*. 서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4. 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et al. (2005).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산업의학학회지*, 17(4), 297-317. doi:10.35371/kjoem.2005.17.4.297
  45. 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형렬, 김인아, 정진주, et al. (2011). 농업인 업무스트레스 평가 지표의 개발과 도농 비교 연구. 수원: 국립농업과학원.
  46. 정강화. (2008). 산재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정선이, 차승은, & 이주미. (2023). 보육교사의 휴근무시간과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휴게시간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2(1), 225-244. doi:10.20497/jwce.2023.12.1.225
  48.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et al.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9.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과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6(3), 143-151. doi:10.12653/jecd.2019.26.3.0143
  50. 조옥희, & 임종미. (2021). 중년기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갱년기 증상의 매개효과. *가정간호학회지*, 28(3), 266-275. doi:10.22705/jkashcn.2021.28.3.266
  51. 주은선. (2016). 노동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750-759. doi:10.5392/JKCA.2016.16.07.750
  52. 주효진. (200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논총*, 45(4), 195-221.
  53. 최수찬, 이은혜, 원경림, 조영림, & 김다솜. (2019). 대학 행정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67-81. doi:10.5392/JKCA.2019.19.07.067
  54. 최유승, 조예진, 황예은, & 현명호. (2022). 근로자 기질에 따른 군집 유형과 시간관리, 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의 관계. *Stress*, 30(20), 69-74. doi:10.17547/kjsr.2022.30.2.69
  55. 최정신, 황정임, 최윤지, & 한송희. (2018). 농촌지역 청년층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역생활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4), 195-211. doi:10.33932/rir.41.4.10
  56. 최정신, 최윤지, 채혜성, & 김가희. (2022). 농업인의 일·생활 균형과 사회적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4), 717-733. doi:10.7856/kjcls.2022.33.4.717
  57. 최진욱, & 노종호. (2017). 인사관련 요인과 직무관련 요인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23(3), 93-124. doi:10.19067/jgs.2017.23.3.93
  58. 최해진, & 권혁기. (2008). 종업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4), 1723-1749.
  59. 통계청. (2021). *2020 농림어업총조사*
  60. 통계청. (1991). *1990 농림어업총조사*
  61. 통계청. (2023). *2022 농가경제조사*
  62. 황인욱,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 김종숙. (2017).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성공 특성 및 영농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1), 21-45. doi:10.22921/jrs.2017.25.1.002
  63. 황정임, 최윤지, 최정신, & 정용경. (2019). 청년농업인의 거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6(4),

- 181-191. doi:10.12653/jecd.2019.26.4.0181
64. 황혜신, & 이환성. (2020). *포용국가를 위한 BLI (Better Life Index) 성과관리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65.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66. Babapour, A. R., Gahassab, M. N., & Fathnezhad, K. A. (2022). Nurses' job stress and its impact on quality of life and caring behaviors: A cross-sectional study. *BMC Nursing, 21*(75), 1-10 doi:10.1186/s12912-022-00852-y
67. Barnett, R. C. (2006). Relationship of the number and distribution of work hours to health and quality-of-life (QOL) outcomes. *Research in Occupational Stress and Well Being, 5*, 99-138. doi:10.1016/S1479-3555(05)05003-1
68. Burckhardt, C. S. (1985). The impact of arthritis on quality of life. *Nursing Research, 34*(1), 11-16. doi: 10.1097/00006199-198501000-00003
69.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Quality of American life, th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http://www.jstor.org/stable/10.7758/9781610441032>
70. Dembe, A. E., Erickson, J. B., Delbos, R. G., & Banks, S. M. (2005). The impact of overtime and long work hours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New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2*(9), 588-597. doi: 10.1136/oem.2004.016667
71. Hayes, A. F. (2021).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Y: Guilford Press(e-book).
72. Hayes, A. F. (2022). *Process macro (Version 4.2)*. Computer Software.
73. Hong, Y., Zhang, Y., Xue, P., Fang, X., Zhou, L., Wei, F., et al. (2022). The influence of long working hours, occupational stress, and well-being on depression among couriers in Zhejiang,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3*, 1-8. doi:10.3389/fpsyg.2022.928928
74. Jennifer, M. (2014).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tour guide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9*(10), 1170-1190. doi:10.1080/10941665.2013.839459
75.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A new role for government? *Political Theory, 22*(2), 219-252.
76. National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 (1999). *Stress at work* (Issue No. 99-101).
77. OECD Better Life Index. (2023, May 15). *How's life?*. <https://oecdbetterlifeindex.org>
78. Saarni, S. I., Saarni, E. S., & Saarni, H. (2008). Quality of life, work ability, and self employment: A population survey of entrepreneurs, farmers, and salary earne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5*(2), 98-103. doi:10.1136/oem.2007.033423
79.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ing perspective*.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80. Stephen M. H., Robert T. B., Edington, D. W., & Kloss, D. M. (1988).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7*(1), 29-35. doi:10.1080/07448481.1988.9939038
81. The WHOQOL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Medicine, 41*(10), 1403-1409. doi:10.1016/0277-9536(95)00112-k
82. The WHOQOL Group. (1998).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logical Medicine, 28*(3), 551-558. doi:10.1017/S0033291798006667
83. Viana, S. O., Sampaio, R. F., Mancini, M. C., Parreira, V. F., & Drummond, A. S. (2007).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with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Brazil: Associations with symptoms, functional limitation and coping.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7*(1), 33-46.
84. Woo, D., Lee, Y., & Park, S. (2020). Associations among working hours, sleep durati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men. *Health Quality Life Outcomes, 18*(1), 1-6. doi:10.1186/s12955-020-01538-2
85. World Bank Open Data. (2023, May 15.). *GDP(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86. Young, K. J., & Longman, A. J. (1983). Quality of life and persons with melanoma: A pilot study. *Cancer Nursing, 6*(3), 219-226. doi:10.1097/00002820-198306000-00008

Received 09 June 2023; Revised 15 June 2023; Accepted 23 June 2023.



Dr. Jung Shin Choi is a Ju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women and rural familie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prit9515@korea.kr

phone: 82-63-238-2647



Ms. Yoon Ji Choi is a Se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eturning to rural areas, rural women, responding to rural aging, and quality of life.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

phone: 82-63-238-2645



Dr. Joo Lee Son is a Ju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elderly.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baljuri@korea.kr

phone: 82-63-238-2648



Ms. Yong Kyu Park is a Post-Master's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young farmer and job decision-making.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park093@korea.kr

phone: 82-63-238-2658